

# 오성그린농장 - 김상준 농가

## 2007년 한우 고급육 생산 대상 농가

전북지역본부 차장 김 영진  
과장 정 중학

전북 정읍시 이평면 산매리 비육우 농장과 인근 덕천면의 번식우 농장 두곳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오성그린농장(대표 김상준)은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형 전업농으로 이번 2007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표창에서 대상을 수상한 농가이다. 현재 715두 규모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등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갖춰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20년 전부터, 휴경기 눈에 청보리,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의 조사료를 경작하는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순수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앞장서서 경종농가의 소득증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조사료포를 20만평 확보하고, 분뇨를 퇴비

화 해 전량 조사료포에 살포하는 자연순환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벼짚, 보리, 수단그라스 등을 100% 자급하면서 15%의 농후사료를 급여하고 있지만 곧 100% 조사료로만 사육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사양관리

큰 특징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선진 기술도입과 전파로 타 농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축사의 경우 설계자체를 환기를 고려한 팬 설치로 내부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비육우사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용 기구를 설치하는 등 소의 생리적인 부분에 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밀소·비육우 혈통관리 및 개량

자체번식우 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비육·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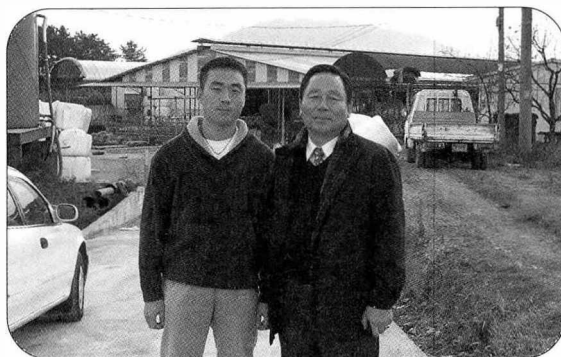
## ‘한·미 FTA 협상 타결 후에도 한우고기의 경쟁력 확신’

하여 품질이 우수한 번식우의 경우 장기 번식을 유도하고, 후대검정 결과 품질이 불량할 경우 어미소의 산차수에 상관없이 조기 도태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혈통관리 및 개량이 가능하다.

### 향후 방향

국제 곡물가격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축산업의 영위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축종 중 유일하게 토종으로 남은 것이 한우라 강조한 그는 “열악한 축산 여건 하에서 축산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처럼 안 될 이유가 없다”며 “겨울철 노는 논만 이용해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금조사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한우고기의 고급화, 차별화, 브랜드화

의 경영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서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2007년도 오성그린농장 육질등급 출현율〉 (단위: 두, %)

등급	1 <sup>st</sup>	1 <sup>st</sup>	1	2	3등급 이하	계
두수(두)	28	6	3	1	-	38
출현율(%)	73.7	15.8	7.9	2.6	-	100
전국(07.1~11)	73.7	15.8	7.9	2.6	-	100
전국대비	62.8	Δ12.6	Δ24.1	Δ21.6	Δ4.6	-

